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75장** **다같이**

1.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후렴〉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2.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3.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4.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다니엘 5:17-24** **인도자**

-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호를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 24 이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설 교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17-24)

느부갓네살이 44년 통치하다 죽고, 몇 대 후에 외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했다. 벨사살은 벨드사살과 마찬가지로 ‘벨(신)이 왕을 지키시기를!’이란 의미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모아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나라는 전쟁 중이고 부왕은 전장에 나가 있는데, 지도층들은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벨사살은 호기를 부린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온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자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물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기물로 쓰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신성모독이다. 최소한 느부갓네살은 그것들을 탈취해 왔어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했다.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우상의 재질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 ▶이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응하셨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모세의 돌판에 계명을 써주신 이후 처음이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6절). 왕은 바벨론의 술객, 술사, 점쟁이, 지혜자들을 불러보았지만,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 한다. 결국 왕비(태후)의 소개로 은퇴했던 다니엘이 소환된다.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일종의 해결사다. 사람들은 그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70대 고령이었을 것이다. ▶왕은 다니엘이 문자를 읽고 해석하면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보수를 거절한다. 복채를 바라고 풀이하는 것은 무당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의 생애 중 중대한 사건을 회상시킨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쳐서 미치게 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함으로 낮추신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알게 된 후에 회복된 사실을 밝힌다. 선조의 역사를 통해 배웠어야 했는데 벨사살 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으면서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책망한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지자적 기소를 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함으로 복권이 되었지만, 벨사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 교만의 종말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 맞이했다. 회개 여부에 있었다. ▶이제 다니엘은 문자를 읽고 해석한다. 문자는 이렇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어서 끝을 내신다는 의미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왕이 하나님께 저울로 달아 부족함이 뵈었다는 의미다. ‘바르신’은 ‘나누다’는 의미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메네, 세겔, 바르신은 사실은 동일한 사태를 묘사하는 세 가지 다른 용어다. 심판, 심판, 그리고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벨사살이 당한 것은 느부갓네살과 달리 경고도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전에 주신 은혜의 시간이 다한 것이다. 이 말은 벨사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은혜의 유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결국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에 물길을 이용해서 침입해서 잔치를 벌이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날의 벨사살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다. 장례식이었다. 벨사살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알지 못한, 세속적인 의지와 환락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해서 신바벨론 제국은 멸망했고, 왕은 죽었고, 왕국은 분열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